

포화상태에도... 광주·전남 식당 창업 많다

소규모 자본에 기술없이 쉽게 뛰어들수 있어 출혈경쟁 심해 폐업률도 높아... 과밀업 피해야 개인사업자 1년새 3500명 늘어... 9.7% 증가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난 월급쟁이들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치킨집과 편의점으로 대변되는 음식점과 소매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제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14년 창업해 지난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전국적으로 65만2285명으로, 1년 전(56만6612명)보다 15.1%나 증가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개인사업자는 3만93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만5840명에 비해 3509명 9.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일반 사업자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를 가르는 말로 통상 자영업자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이들 일반사업자의 경우 광주·전남 지역 2만5371명을 포함, 전국 43만3284명 가운데 업종별로 음식점창업자가 8만261명(19.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간이사업자는 광주·전남 1만3978명을 포함, 전국 21만9001명 가운데 음식점 창업자가 7만727명(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업자보다 창업비율도 높았다.

이들 업종에 창업이 몰리는 것은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자본과 큰 기술 없이도 쉽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입 장벽이 낮고 전문 기술이 없어도 진입할 수 있어 회사가 그만

둔 중년층에게는 가장 '만만함' 창업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시장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이는 일반적인 분석이다.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수익률이 싹둑 떨어지고 폐업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광주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광주지역 자영업체 수는 8만9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79.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자영업체 중 폐업률은 15.8%로 전국 평균(13.6%)에 비해 2.2%포인트 높았고 타 지역보다 0.9~2.3%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창업 후 2년간 생존율도 44.3%에 불과해 2년 이내에 절반 이상(55.7%)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 자영업체의 창업시 평균 부채비율은 36.4%로 전국 평균(24.2%) 보다 높았다. 창업을 한 자영업자 6명 중 1명 정도만이 살아남은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보증증 공급하고 폐업

하는 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거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업 지원업체 한 관계자는 "지속되는 불황 속에 출혈경쟁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출혈이 이어지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치킨집과 제과제빵, 네일아트 등 과밀업종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돼 시장의 과밀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음식업과 같은 과밀 업종 외에 새로운 종류의 콘텐츠나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각종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몰려 있는 충장로 거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지역 창업 성공률 높이자”

창업지원네트워크 오늘 포럼 동명동 '아이플렉스 광주'서

광주지역 창업 성공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킹 모임인 '광주창업지원네트워크'가 27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이플렉스(I-PLEX) 광주' 건물 1층 스타트업빌(STARTUP VILL)에서 첫 창업포럼을 갖는다.

이번 창업포럼은 광주창업지원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창업포럼은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최했으며 광주테크노파크·K-ICT창업멘토링센터·광주창업지원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광주 지역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인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위한
제1회 광주창업포럼

광주지역 창업, 예비창업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멘토사 등이 모여 창업 성공을 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성공한 창업자를 초청하여 성공 노하우를 공유한다.

일시 | 2016년 7월 27일 17:00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장소 | STARTUP VILL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0)

순서

- 14:30 - 16:30 창업포럼 (선착순 100명)
- 17:00 - 17:30 등록 및 등록
- 17:30 - 17:45 등록 및 등록
- 17:45 - 18:10 그라운드 시어 연가 (8월 10일)
- 18:10 - 18:30 창업 멘토링 (10명)
- 18:30 - 20:00 창업 멘토링 (10명)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K-ICT 창업포럼, 광주창업지원협의회
주관 | K-ICT 창업포럼, 광주창업지원협의회
후원 | K-ICT 창업포럼, 광주창업지원협의회, 광주테크노파크, K-ICT 창업포럼, 광주창업지원협의회, 광주창업지원협의회

문의 | kictp@kwangju.go.kr, kictp@kwangju.go.kr, kictp@kwangju.go.kr

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창업자가 선배 창업자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창업지원기관 실무자들과 인적 교류를 통해 향후 창업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본행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신청자에 한해 창업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며 김영준 에이스골프 대표의 '그들이 사는 이야기' 초청강연과 최신 창업 트렌드 소개 등이 진행된다. 행사 막바지에 참석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돕는 차맥 파티도 이어진다.

한편 아이 플렉스 광주는 지식·정보통신·첨단제조 분야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도심형 복합산업시설로, 광주시 동구 동명동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 부지에 들어섰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행자부·국토부·중기청

행정자치부는 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등과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7일까지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개팀을 가린다. 10개팀은 한 달 간 1대1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11월 말 왕중왕전과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기존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에 더해 매쉬업 부문이 신설됐다. 공공데이터 서비스 융복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활용 모델을 찾는다.

최종 수상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국가포상을 받는다. 대상 2000만원을 비롯해 총 8600만원 규모 사업자금이 지원된다. 예선 공모기간은 9월 23일까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창업 이야기



외식업계 중소형화 추세

한때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외식업소의 형태는 대형 외식업소였다. 주차장까지 딸려있다면 금상첨화인 그런 대형 외식업소는 당연히 현직 외식업 종사자들에게는 로망이었고 사업의 최종 종착지 같은 목표였고 외식사업자로서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런 흐름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지난 몇 년 전부터 빠르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험이나 자본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대형업소를 창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40평형대의 중소형 점포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한 것이다.

오히려 경험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자본동원 능력이 충분한 예비창업자들이 여전히 대형 외식업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정작 외식업소 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기존 외식사업자들은 대형 외식업소로의 확장이나 추가 출점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속칭 외식업계 선수들은 왜 대형 외식업소 창업을 꺼릴까? 한마디로 100평짜리 외식업소 하나를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30~40평짜리 점포 2개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수익성이 높고 관리가 편하고 리스크가 적다는 사실이다. 말을 바꿔 설명하자면 대형 외식업소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다 많은 직원들을 필요로 하기에 인건비 부담은 물론 직원들의 관리나 구인에도 애를 먹게 되며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형 점포 2개의 경우 어느 한 곳이 장사가 부진해도 나머지 한 곳이 잘되면 그래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만 대형 외식업소는 리스크에 대한 분산 대책이 전무하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일단 왜 대형업소의 수익성은 하락했을까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형 외식업소의 주요 수익성 하락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의 원가상승률과 임대료와 인건비는 해마다 높아지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수년째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급격한 수익률 하락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외식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의 포화상태와 난립된 외식업소들과의 겹치는 업종이나 메뉴가 많아서 시장을 나눠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발생한 고객수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규모가 크다보니 필수 종업원의 숫자가 많아진데다 그로 인한 종업원의 관리가 쉽지 않고 종업원들이 이직이 심한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구인난을 꼽을 수 있다.

기타 요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의 상승과 외식시장의 위축, 초기 창업비의 과도한 소요, 실패 시 발생하게 될 과도한 손실자금 규모,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달로 인한 개인점포의 경쟁력 약화, 갈수록 증가하는 세무부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홍보마케팅 비용의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외식업소의 창업을 꿈꾼다면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차별화 된 메뉴구성, 메뉴의 단순화와 가공 식재료 사업 확대를 통한 직원의 최소화, 수익성이 떨어지고 손이 많이 가는 메뉴의 배제 등을 반드시 고민해보길 바란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향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향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